

## 주말 관람객 또 절반도 못 채워

여수박람회 개막 9일째...조직위 흥피 환불·운영미숙 불만 쏟아져

여수세계박람회가 심상치않다. 지난 12일 개막한 뒤 9일이 지났지만 관람객 수는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박람회를 다녀간 관람객들도 호평보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0일 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관람객은 4만4828명(누계34만3485명)으로 애초 휴일 목표치로 잡았던 10만명에 턱없이 부족했다. 개막 후 첫 주말·휴일이었던 지난 12~13일에도 관람객은 이틀간 총 5만9000여명에 머무는 등 개막 9일 동안 하루 평균 4만여명을 밑돌고 있다.

총 전시 기간인 93일 동안 목표치인 1082만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1만6000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 주중 관람객은 평균 3만5655명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도 4만1302명에 그치는 등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위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운영 중인 여수 인근 4곳의 환승주차장은 이날도 텅텅 비어있었다. 오전 11시 이후에는 환승주차장과 박람회장을 오가는 순환버스가 고작 5~10명의 관람객을 태우고 출발해야 할 정도였다.

박람회 초반 흥행에 실패한 이유는 영상 중심의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고, '전시관 예약제'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장시간 줄을 서도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전시관이 몇 곳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조직위가 개막전 "1000만명 이상이 올 것"이라고 장담해놓고서도 정작 어떻게 관람객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핵심시설인 디지털갤러리 출입구 광장이 20일 휴일임에도 관람객들이 많지 않아 쓸쓸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초기 목표 관람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면서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직위는 개막 초기이고, 방화과 휴가철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흥행이 다소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의 사정도 그리 밝지는 않아 보인다. 최근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 대부분이 중·노년층 단체 관광객과 학생들이어서, 입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박람회 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또 조직위 홈페이지에는 전시에 대한 불만과 환불 요청, 운영 미숙에 대한 비난, 입장권 관련 조직위원회 콜센터 전화불통을 항의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입장권을 20% 가량 할인해 되팔겠다는 글도 게재되고 있다.

입장권 예매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인터넷 '전시관 예약' 현황도 21일~6월 20일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는 50~60%에 머물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관람객 수도 적고 다녀간 사람들의 만족도도 낮아,

남은 기간 흥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

며, 초반 흥행에 대한 우려가 많이 불식된 만큼 관람객 수는 조만간 분께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오늘의 여수엑스포

▶ 관련기사 3편

여수세계박람회에는 각 국의 문화뿐 아니라 국내 지자체의 역사와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오늘 지자체의 날에는 경상북도가 초대됐다. 기악합주와 궁중무용, 영남민요, 부채춤, 사물, 버나돌리기 등 경상북도의 특색이 들어있는 이색 공연이 풍성하다.

- ◇지자체의 날-경상북도(천막극장·오후 2시)
- ◇국가의 날-스위스(엑스포홀·오전 10시)
- ◇이스라엘 문화공연(해양광장·오전 11시30분 등 3회)
- ◇스위스 문화공연(엑스포홀·오후 3시)
- ◇앙골라 문화공연(엑스포홀·오후 6시)
- ◇특별기획공연-비틀게비, 댄싱허어로(천막극장 오전 10시부터)

- ▲어제의 관람객수=4만4828명(이하 20일 오후 6시 현재)
- ▲누적 관람객 수=34만3485명

스승님 부탁으로 남수단 '학교 세우기' 나선 살레시오 동문회

## 목표액 3배 1억5천만원 모았다

학교 찾은 원선오 신부에게

1차 기금 5000만원 전달

광주 살레시오 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정근표·60)가 20일 학교 강당에서 원선오(Vincenzo Donati·84) 신부에게 1차 학교 건립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돈은 현재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5만명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100개 세우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원 신부를 돕고자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쳐 마련한 것이다. (본보 5월 11일자 1·18면, 관련기사 18면)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다. 지난 1962년부터 19년간 살레시오고교에 재직하면서 제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원 신부가 지난해 7월 '현지에 학교를 지을 기금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총동문회는 '발았던 사랑에 보답 하자'며 지난 4월 초 5000만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소문이 퍼지고, 스승을 향한 제자들의 '박한 사랑'이 이어지



20일 살레시오 중·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남수단에서 학교 100개 세우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원선오 신부에게 학교 건립기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면서 지난 19일까지 목표액의 3배가 넘는 1억5141만1000원이 모금됐다. 총동문회는 남은 1억여원을 비롯해 계속 모금되는 성금은 제 2~3학교를 건립할 때 수단으로 보내거나 학교의 기타 학습자료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원 신부는 이날 졸업생들 앞에서 "(살레시오의 성령에)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라

고 고마움을 전한 뒤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근표 총동문회장은 "광주일보 보도 이후 목표 이상의 성금이 모였다"며 "젊은이들에게 평생을 바친 원 신부님의 뜻을 이어받아 살레시오인들이 힘을 합쳐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MB, 5·18 불참 이어 기념사도 생략

32주년 기념식 총리 기념사로 대체...금남로 대동한마당 추모 절정

5·18민중항쟁 32주년을 맞아 80년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면서 추모 분위기가 절정을 이뤘다. (관련기사 5·7면)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20일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 일대에서 '5·18 민중항쟁 32주년 기념 시도 민대동한마당'을 열고 5·18의 대중정신을 나누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금남로 특별무대 주변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은 물론 전국의 학생·노동자들이 몰려 5·18 재연극과 주먹발춤, 현월 등에 참여하면서 80년 오월 대동 및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또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전국노동자대회, 행사위의 국민대회가 각각 금남로에서 펼쳐졌으며 무등경기장 일원에서는 택시 50여 대가 참여해 80년 오월 금남로 차량시위를 재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와 5·18 유공자, 유족, 단체 회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중항쟁 32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희망의 빛 다시 피는 꽃'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현화·분향, 5·18 민주화운동 경과보고, 김 총리의 기념사 낭독, 광주시립합창단의 '5월의 노래'

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공연과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이어받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등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워 풀려있는 일류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가 공식 기념행사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4년 연속 불참한데다 지난해까지 국무총리가 대독해 왔던 대통령 기념사마저 총리 기념사로 격을 낮춰, 5·18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를 성토했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 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님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혜택이 좋은 회원권 보다는 대우받는 회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2012년 6월 30일 까지
- 클럽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하리 1219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 모집인원: 9명	하트 정회원 - 모집인원: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회금액: 3억 3,000만원</li> <li>▶ 회원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회/1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li> <li>-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li> <li>-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365일 사용, 1일 1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회금액: 2억원</li> <li>▶ 회원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li> <li>-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li> <li>-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 1일 1회)</li> </ul> </li> </ul>
휴먼 정회원 - 모집인원: 10명	해피 정회원 - 모집인원: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회금액: 1억 5,000만원</li> <li>▶ 회원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li> <li>- 지정회원 1인: 중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li> <li>-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90회 사용, 1일 1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회금액: 1억 1,000만원</li> <li>▶ 회원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li> <li>- 선택: C형, D형 중 선택(1)</li> <li>C형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 할인(연 45회 사용, 1일 1회)</li> <li>D형 지정회원 1인: 중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li> </ul> </li> </ul>
중중 / 평일 회원 - 모집인원: 4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회금액: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li> <li>▶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선 할인</li> </ul>	

※ 계약시: 정회원인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원납시: 모든 특전  
※ VIP·하트·휴먼·해피 정회원은 광주은행 당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 Fax 061)330-5009  
www.happinesscc.com